

# 영랑의 시어 '제우다'에 대하여

이 동 석 (Lee, dong-seok) \*

(E-mail : dsds7311@empal.com)

논문접수일 : 2009년 1월 15 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월 19 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월 21 일

---

\* 학위취득대학 : 고려대학교  
현직: 청주대학교 교수

## 영랑의 시어 ‘제우다’에 대하여

### <국문요약>

영랑의 시 ‘除夜’에 ‘제운밤’, ‘제운맘’이라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여러 해석이 내려졌는데, 크게 보면 ‘제운밤’이 ‘除夜’를 고유어로 표현한 신조어라는 견해, ‘제우다’가 표준어 ‘겹다’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 ‘제우다’가 방언의 ‘제우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운밤’ 및 ‘제운맘’의 정확한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각각의 주장들을 검토해 보면, ‘제운밤’이 ‘除夜’를 의미하는 신조어라는 견해는 방언의 ‘제우다’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서 논거가 부족하고, ‘제우다’가 표준어 ‘겹다’ 및 방언의 ‘제우다’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

다만 기존의 논의에서는 표준어 ‘겹다’와 방언의 ‘제우다’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접점을 언급하지 못했고, 미시적으로 ‘제운밤’, ‘제운맘’의 문맥적 의미를 세밀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제운밤’은 ‘깊은 밤’ 또는 ‘늦은 밤’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제운맘’은 ‘시름겨운 마음’, ‘시름 많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제어 ] 김영랑, 시어, 방언, 제우다, 겹다, 제야, 제운밤, 제운맘

## I. 서론

영랑은 전남 강진 출신의 시인으로서 향토성이 짙은 소재와 시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시인으로 손꼽힌다. 영랑이 사용한 향토성 짙은 시어는 주로 전남 방언에 기초를 둔 것인데, 그의 시에 사용된 전남 방언은 시를 감칠맛 나게 해 주는 주된 재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난해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영랑의 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일부 시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확한 의미가 검증되기도 했지만, 일부 시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영랑의 시어 중 ‘제우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영랑의 시에서 ‘제우다’는 ‘제운’의 형태로 단 2회 출현하는데, 이 시어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제우다’에 대한 기존 논의를 참고하여 ‘제우다’가 표준어 ‘겹다’ 및 남부 방언의 ‘제우다’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영랑의 시에 2회 사용된 ‘제우다’의 구체적인 문맥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 보고자 한다.

## II. ‘제우다’의 의미 탐구

영랑이 사용한 ‘제우다’라는 시어는 1930년 3월 『시문학』 1호에 발표한 ‘除夜’라는 시에서 유일하게 모습을 보인다. 이후 이 시는 『영랑시집』(1935)과 『영랑시선』(1949)에 재수록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우다’의 표기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의 전체적인 표기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된다.

- (1) 제운밤 촛불이 찌르르 녹어버린다  
못건디게 묵어운 어느별이 썩러지는가

어둑한 골목골목에 수심은 찢다 가란젓다  
제운밤 이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

히부얀 조이등불 수집은 거름거리  
샘물 정히 썩는 안쓰러운 마음결

한해라 기리운정을 못고 싸어 흰그릇에  
그대는 이밤이라 맑으라 비사이다

- 『시문학』 1호(1930. 3) 수록

위의 (1)은 ‘除夜’라는 시가 처음 발표될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연과 2연에서 공통적으로 ‘제운밤’(제운 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시가 『영랑시집』(1935)과 『영랑시선』(1949)에 재수록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2연의 ‘제운밤’이 ‘제운맘’으로 교체된다.

- (2) ㄱ. 제운밤 촛불이 찌르르 녹어버린다  
못건디게 묵어운 어느별이 떠러지는가

어둑한 골목골목에 수심은 찢다 가란젓다  
제운맘 이 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

히부얀 조히등불 수집은 거름거리  
샘물 정히 떠붓는 안쓰러운 마음결

한해라 기리운정을 못고싸어 흰그릇에

그대는 이밤이라 맑으라 비사이다 (除夜)

- 『영랑시집』(1935) 수록

나. 제운밤 촛불이 찌르르 녹어버린다  
못견디게 묵어온 어느별이 떠러지는가

어둑한 골목골목에 수심은 떴다 가란졌다  
제운밤 이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

히부안 조히등불 수집은 거름거리  
샘물 정히 떠붓는 안쓰러운 마음결

한해라 괴리운 정을 뭉고싸어 흰그릇에  
그대는 이밤이라 맑으라 비사이다 (除夜)

- 『영랑시선』(1949) 수록

이러한 교체는 단순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문학』 2호(1930. 5)에서 정오표를 통해 ‘제운밤’을 ‘제운맘’으로 정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조재훈, 1981, 152). 발표 당시 2연에 사용된 ‘제운밤’이 처음부터 오기(誤記)였던 것인지 아니면 두 달 후 작가의 생각에 ‘제운밤’보다 ‘제운맘’이 더 좋겠다고 판단하여 고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한 편의 시에서 ‘제우다’가 사용된 두 가지 용법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제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랑이 사용한 ‘제우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한자어 ‘除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어를 창조했다는 주장이다. 정한모(1964)는 ‘제운밤’에 대해 ‘除夜’를 영랑의 언어감각으로 (새롭게) 창조한 말이라고 하였고, 유연석(1984)는 ‘제운밤’이 표준말이 아니라 영랑이 창출(創出)한 시어로서 ‘흰날’[白日]과 마

찬가지로 한자를 우리말로 직역하다시피한 말이라고 하였다. 또한 허윤희(2007:62)은 ‘제운밤’이 ‘除夜’의 한글식 표현이라고 했다.

‘제야’와 ‘제운밤’의 첫음절이 일치하고 ‘야(夜)가 고유어 ‘밤’에 대응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제우다’가 사용된 예가 있고 특히 남부 방언 어휘에 ‘제우다’라는 단어가 존재하므로 ‘제우다’의 관형사형으로 추정되는 ‘제운’을 영랑의 창조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조재훈(1981)과 이승원(1986)은 ‘제우다’가 ‘겹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재훈(1981)은 충청·전라 방언에서 ‘겨우’를 ‘제우’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며 ‘제운밤’과 ‘제운맘’이 ‘겨운 밤’과 ‘겨운 맘’의 사투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어사전의 의미를 참고하여 ‘제운밤’의 ‘제우다’는 ‘기간이나 철이 기울거나 늦다’의 의미를, ‘제운맘’의 ‘제우다’는 ‘감정이 동하여 억제할 수 없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원(1986) 역시 ‘제운’을 ‘겹다’의 관형사형 ‘겨운’의 충청·전라 방언형이라 단정하고 ‘제운’의 의미를 ‘견디기 어렵고 힘든’, ‘안타깝게 사라져 가는’으로 보았는데, 전자는 ‘제운맘’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제운밤’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동근(1996:71)은 ‘제운’이 ‘除夜’에서 전성된 의미와 ‘견디기 어렵고 고단한’이라는 문맥적 의미로서의 중의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는 ‘제우다’에 대한 두 가지 의미 해석을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인데, 영랑이 정말 의도적으로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허형만(1996:278)은 ‘제운밤’이 ‘겹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除夜’의 ‘제’와 고유어를 의도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에 속한다고 보아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 최형기(1997)은 위의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우다’가 ‘겹다’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를 위해 ‘겹다 → 접다 → 쩍다’라는 ‘ㄱ구개음화 현상’과 ‘ㄷ > ㅌ’와 같은 모음 변화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 방언에 이 두 현상이 모두 있지만, 전남 방언에서 ‘ㄷ > ㅌ’는 양순음과 결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제약(이돈주, 1978:198)이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전남 방언에서 ‘겨’를 ‘제’라 하고 ‘겨우’를 ‘제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남 방언에서 ‘ㄷ > ㅌ’의 변화는 양순음 뒤뿐만 아니라 경구개음 ‘ㅈ’ 뒤에서도 가능하다.

이돈주(1978:198)은 이 변화가 양순음 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겨우 → [keu], [tʃeu]’ 등의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최형기(1997)에서 이를 절대적인 원리로 잘못 이해하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형기(1997)의 주장처럼 ‘ㄷ > ㅌ’ 변화가 양순음 뒤에서만 적용된다고 못을 박더라도 ‘제우다’와 ‘겹다’를 연결시켜 살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표준어와 방언을 비교할 때 표준어의 어형에서 방언형이 도출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연구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표준어는 여러 방언형을 모아 놓은 인공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준어 이외의 모든 방언이 표준어를 거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표준어도 일종의 방언에 속하는 만큼, 표준어와 방언의 어형 차이는 그 이전 시기의 언어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파악하는 게 올바른 연구 태도일 것이다.

표준어 ‘겹다’와 방언 ‘제우다’의 선대형이라 할 수 있는 단어는 중세국어의 ‘계우다’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현대국어의 ‘겹다’는 중세국어에서 ‘계오다’ 또는 ‘계우다’로 표기되었고 그 의미는 ‘이기지 못하다’[不勝]였다. 그러던 것이 중부 방언에서는 ‘계우다 > 겹다’와 같은 통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남부 방언에서는 ‘계우다 > 제우다’와 같은 통시적 변화가 일어나 지금과 같이 두 어형이 차이를 보

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sup>1)</sup>.

(3) 調達인 곳갈을 밧고 五逆 ㅁ슴을 계와 阿鼻地獄에 드러  
가니 <月印千江之曲 上:47b 其 130>

그 後에사 외니 올흐니 이긔니 계우니 흘 이리 나니라  
<月印釋譜 1:42b>

흐물며 貪慾 계워 목슴 催促호고 人生 앓기리 꺾 아니 어  
리니 <月印釋譜 10:2b, 月印千江之曲 其264>

그렇다면 ‘겹다>제우다’와 같은 변화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굳이 ‘ㄱ>ㄱ’와 같은 모음 변화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중세국어로부터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모음 변화는 ‘ㄱ>ㄱ’가 아니라 ‘ㄱ>ㄱ’이다.

그렇다면 ‘ㄱ>ㄱ’와 같은 변화는 얼마나 보편적일까? 얼핏 보기에 ‘ㄱ>ㄱ’와 같은 변화는 그리 보편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모음 ‘ㄱ’ 앞에 초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한글 맞춤법 제8항은 ‘계, 례, 메, 폐, 혜’의 ‘ㄱ’이 ‘ㄱ’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그 예로 ‘계수’(桂樹), ‘혜택’(惠澤), ‘핑계’ 등을 들고 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계, 례, 메, 폐, 혜’ 등이 실제로는 [계, 례, 메, 폐, 혜] 등으로 발음되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 규정의 설명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현대 국어의 음절 표기에 ‘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현대국어 표기에 ‘제’라는 음절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실제 발음이 [제]가 되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제8항의

1) 아직 영랑의 시어 ‘제우다’가 현대국어 ‘겹다’에 대응된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가정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음운 변화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규정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계우다’에 ㄱ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었을 때 자음만을 교체하여 표기하면 ‘제우다’가 되겠지만, 바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발음은 [제우다]가 된다. 이 발음이 바로 영랑의 시에 사용된 ‘제우다’와 일치하는데, ‘제우다’는 중세국어 어휘 ‘계우다’에 ㄱ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된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므로 ‘제우다’가 표준어 ‘겹다’에 대응된다고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2)</sup>.

그런데 영랑이 사용한 시어 ‘제우다’는 같은 강진 출신 시인인 김현구의 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모습을 드러낸다.

(4) ㄱ. 붉으레한빛 얹게떨린 저녁햇살 슬프다

마른풀잎 스쳐가는 바람끝도 쓸쓸타  
힘없이 해는떨고 재운바람 풀에자고  
성끝에 혼자서 꿈은 외롭다

- 김현구, 「落日夢」

ㄴ. 시들픈 꽃잎이 나른다 나른다

재운봄 언덕에  
오오 번아 그잔 들으시라  
보는체 말자

- 김현구, 「無常」

김선태(1997:366)은 김현구의 시를 다루면서 ‘재운 바람’의 의미를 ‘지난 또는 지친 바람’으로 보고 ‘재운 봄’의 의미를 ‘지친 봄’, ‘늦은 봄’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의미가 영랑의 시에 표현된 ‘제운 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

2) 중세국어의 ‘계우다’가 현대국어의 표준어 ‘겹다’로 바뀌는 현상에 대한 것은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석(2005)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동석(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김선태(1997:366)이 제시한 근거는 전남 방언의 ‘제우다’가 ‘식혜를 채워 버렸다.’에서와 같이 ‘도가 넘다, 지나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애기가 많이 울어 인자는 채워 울도 못한다.’와 같이 ‘너무 지나치다, 피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겹다’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최형기(1997)은 김선태(1997:336)의 주장을 수용하여 김현구의 ‘재운봄’은 ‘늦봄 혹은 봄의 끝무렵’으로, ‘재운바람’은 ‘불다 지친 바람’으로 해석했으며, 영랑의 ‘제운맘’은 ‘지친 마음’으로, ‘제운밤’은 ‘한 해의 마지막 밤’으로 해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ㄱ. ‘제운밤’은 한자어 ‘除夜’와 고유어 ‘밤’을 조합한 신조어다.

ㄴ. ‘제우다’는 ‘겹다’와 관련이 있다.

ㄷ. ‘제우다’는 방언의 ‘제우다’와 관련이 있다.

(5ㄱ)은 ‘除夜’를 ‘제운 밤’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운 밤’과 ‘除夜’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단순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분석은 방언 어휘 ‘제우다’의 존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결여하며, ‘제운 맘’의 의미 해석에 일조(一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떨어진다.

(5ㄴ)은 ‘제운 밤’, ‘제운 맘’의 해석을 표준어 ‘겹다’의 의미와 연관시켜 보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5ㄷ)은 ‘제운 밤’, ‘제운 맘’의 해석을 전남 방언의 ‘제우다’와 연관시켜 살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얼핏 보면 이 두 해석 방법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최형기(1997)은 ‘제운 밤’, ‘제운 맘’이 표준어 ‘겹다’와는 관

련이 없고 전남 방언의 ‘제우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5ㄴ)은 표준어와 비교를 한 것이고 (5ㄷ)은 방언과 비교를 한 것이어서 이 둘이 서로 배치(背馳)된다고 보기 어렵다. 방언의 ‘제우다’와 표준어의 ‘겹다’가 서로 대응 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중세국어의 ‘계우다’가 표준어 ‘겹다’와 방언의 ‘제우다’로 분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시적인 음운 변화로 설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적인 연관성만 확보된다면 (5ㄴ)과 (5ㄷ)을 모두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어 ‘겹다’ 및 방언형 ‘제우다’의 실제 의미를 대응시켜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작업에 앞서 다른 작품에서 사용된 ‘제우다’의 용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6) ㄱ. 뒤 오는 이 없는 꿈에는

하늘이 항시 호수처럼 푸르러  
적은 새 가지 읊으는 곁에  
송화가루 지고  
외떨기 찢레  
바위들 하나  
기나긴 하로해 직히기 제우노니  
참으로 마음속 그리운 이 있으면  
이런 꿈작 호올로 숨였기도 즐거워  
고은 송화가루 송화가루  
손에만 묻다

- 유치환, 「그리우면」, 『청마시초』

ㄴ. 千秋에 죽지안은 論介여

하루도 살스수업는 論介여  
그대를사랑하는 나의마음이 얼마나 질거으며  
얼마나 슬흐것는가

나는 우습이제워서 눈물이되고 눈물이제워서 우습이  
됩니다

容恕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論介여

- 한용운, 「論介의愛人이되야서그의廟에」, 『님의 침묵』

ㄷ. 오늘도, 무디고 무딘 호미날은

붉은흙을 뒤지고 뒤지어

벌서 해는 한나절이 제웠고나!

- 윤곤강, 「哀想」, 『대지』

ㄹ. ‘일 안 허는 사람 밥 안 준다’

어슴새벽에도 동구 밖 머슴새가 와서 울고

훗시집간 우리 누님 근친 온다던 날

이 나무 아래 서서

해종일 해거름 밀리는 들판길을

설움에 재우도록 내다보기도 했네

- 송수권, 「쓸쓸한 사장나무」

(6ㄱ)의 ‘제우다’는 문맥상 ‘힘들다, 어렵다’ 정도로 해석된다. ‘직히기 제우다’는 ‘지키기 어렵다, 지키기 힘들다’ 정도가 될 것이다. 또 (6ㄴ)의 ‘제우다’는 ‘참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 정도가 된다. ‘우습이 제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제워서 우습이 된다’는 것은 ‘웃음을 참지 못해 눈물이 되고 눈물을 참지 못해 웃음이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6ㄷ)에서 ‘한나절이 제웠다’는 것은 문맥상 ‘한나절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6ㄹ)의 ‘설움에 재우도록’은 (6ㄴ)의 ‘우습이 제워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설움에 재우도록 내다보기도 했네’는 고된 일을 하며 온갖 설움을 다 겪으면서 누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달픈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다. 여기에서 ‘설움에 재우도록’을 표준어로 표현하면 ‘설움에 겹도록’이나 ‘설움에 겨워’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여기에서 ‘겹다’는 ‘(감정을) 참지 못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다’라는 의

미를 갖는다.

영랑의 ‘제운 밤’, ‘제운 맘’과는 달리 이들 시에서 사용된 ‘제우다’는 비교적 문맥에 의한 의미 추정이 쉬운 편에 속한다. 유치환, 한용운, 윤근강, 송수권의 고향이 각각 경남 통영, 충남 홍성, 충남 서산, 전남 고흥인 것을 감안하면 ‘제우다’(재우다)라는 어휘는 충남을 포함한 남부 방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제우다’(재우다)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ㄱ. 어렵다, 힘들다

ㄴ. (감정을) 이기지 못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다

ㄷ. (시간이) 지나다, 경과하다

(7ㄱ)의 의미는 (6ㄱ)에서, (7ㄴ)의 의미는 (6ㄴ, ㄷ)에서, (7ㄷ)의 의미는 (6ㄷ)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표준어 ‘겹다’의 의미는 어떠할까? 이들 작품에서 쓰인 방언 어휘 ‘제우다’(재우다)가 표준어의 ‘겹다’와 대응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겹다’에 대한 뜻풀이와 이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ㄱ. 정도나 양이 지나쳐 참거나 견뎌 내기 어렵다.

예) 힘에 겨운 일,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 보니 분에 겨워 황송하다.

간밤의 놀이가 너무 겨웠던지 몸이 무거워 보인다.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3) ‘설움에 겹도록’이란 표현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좀 어색할 수 있으나, ‘눈물겹도록 진한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일부 어휘에서 ‘○○(예) 겹도록’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므로, 표준어에서 ‘설움에 겹도록’이 어색하다고 해서 방언에서도 ‘설움에 재우도록’이 어색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ㄴ. 감정이나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 누를 수 없다.

예 흥에 겨운 가락, 제멋에 겨워 어쩔 줄을 모른다.

영신은 감격에 겨워 눈을 딱 감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심훈, 상록수>

ㄷ. 때가 지나거나 기울어서 늦다.

예 김장 때가 겨워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완서, 미망>

이렇게 떠들어 대던 어른들은 밤중이 겨워지면서 하나씩 자리를 떴다. <한승원, 해일>

(7)의 뜻풀이와 (8)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ㄴ)의 의미는 (8ㄴ)의 의미와 대응되고 (7ㄷ)의 의미는 (8ㄷ)의 의미와 대응된다. (7ㄱ)의 의미와 (8ㄱ)의 의미는 다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8ㄱ)은 본용언의 용법을 보이고 (7ㄱ)은 보조용언의 용법을 보여 대등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둘이 가진 기본 의미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다만 표준어와 방언의 쓰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용 환경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방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문학 작품 속의 ‘제우다’(재우다)가 사실은 표준어 ‘겪다’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는 과연 문학 작품 속의 ‘제우다’가 정말 남부 방언의 ‘제우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김현구 시의 ‘재운 바람’과 ‘재운 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김선태(1997:366)이 방언 어휘 ‘제우다’와의 접점을 모색한 바 있지만, 더 많은 작품상의 용례를 가지고 전반적인 비교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특히 ‘제우다’를 사용한 작가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제우다’의

분포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방언에 대한 자료는 극히 일부가 동원됐을 뿐이어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다양한 방언 사전 등을 이용하여 방언 어휘 ‘제우다’의 의미와 용례들을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언 사전이나 연구 자료집들은 빈도수가 높은 단어 위주로 방언형을 조사·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높지 않은 ‘겹다’와 관련하여 ‘제우다’의 의미와 용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지역별 방언 사전의 간행이 활발해지면서 고빈도 단어뿐만 아니라 저빈도 단어까지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는 경향을 보여, 다음과 같은 방언자료집을 통해 ‘제우다’의 구체적인 쓰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9) 가. 『제주말 큰사전』(2007)

제우다 : 겨워하다.

제우다 : 부치다. 힘이 모자라다. 버겁다.

나. 『남해사투리사전』(2005)

제아서 : ① 지쳐서

예) 기다리다 제아서 와 뺏다 아이가.

② 제우다

예) 제아서 보내라!

다. 『전라도 방언사전』(2005)

제우다 : 여의다. 겹다. 지치다.

재우다 : 지치다.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에 재워서 누웠다<sup>4)</sup>.

---

4) 예문에서 ‘밤낮’은 ‘밤낮’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끔 ‘밤낮’의 뒤에 모음이 후행할 때 [밤나치], [밤나출]과 같이 마치 ‘밤낮’의 기저형이 /밤낮/인 것처럼 발음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므로 방언의 발음을 반영한 표기일 가능성

ㄹ. 『전남방언사전』(1997)

제우다 : 여의다. 질리다. 지겹게 느끼다.

ㅁ. 『전라도 우리 텃말』(2006)

제었다 : 일정한 시간(때)이 지났다. 담그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위에서 제시된 ‘제우다’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0) ㄱ.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ㄴ. 지치다, 질리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다.

ㄷ. (감정을) 이기지 못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다

(10ㄱ)은 (7ㄱ), (8ㄱ)과 같은 의미로 파악되고, (10ㄴ)은 (7ㄷ), (8ㄷ)과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10ㄴ)에서 ‘지치다’, ‘질리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다’를 하나의 의미 범주로 묶는 데에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방언자료집은 대개 어휘에 대한 의미 기술 자체가 국어사전의 경우처럼 정밀하지 못한 데다가 구체적인 문맥의 의미만을 생각하다 보면 원초적인 기본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의미 분류 및 의미 기술이 새롭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0ㄴ)의 다양한 구체적인 의미들은 문맥의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된 기본 의미는 바로 ‘시간의 경과’로부터 나온다. ‘(시간이) 지나다’라는 의미 해석은 이 기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치다, 질리다, 지겹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한다.

(9ㄴ)의 『남해사투리사전』에서 제시한 용례를 살펴보면 ‘제우다’

---

을 고려하여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가 가지고 있는 ‘지치다’라는 의미가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통 ‘지치다’라는 단어는 ‘(일의) 강도’ 및 ‘(시간의) 지속’과 관련이 있지만 (9ㄴ)과 같이 ‘기다리다가 지치는 상황’은 순전히 ‘시간의 경과’와만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남해 지역에서 기다리는 경우 외에 고된 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지치다’라는 의미로 ‘제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우다’가 시간의 경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전남방언사전』에 기술된 ‘질리다, 지겹게 여기다’라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시간의 경과와 관련이 있으니, 각 방언 사전에서 기술했던 다양한 의미를 (10ㄴ)처럼 묶어 볼 수 있고, 이때의 기본 의미는 ‘(시간이) 지나다’로 볼 수 있다.

(10ㄷ)의 의미는 사실 (9)의 방언 사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9ㄱ)에서 제시한 ‘겨워하다’나 (9ㄷ)에서 제시한 ‘겹다’라는 의미가 (10ㄷ)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10ㄷ)의 의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0ㄱ)과 (10ㄴ)의 두 의미가 문학 작품 속에 사용된 ‘제우다’의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에 작품 속의 ‘제우다’가 남부 방언의 어휘 ‘제우다’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문학 작품 속의 ‘제우다’는 방언의 ‘제우다’와 같으며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표준어의 ‘겹다’와 같다. 다만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구체화된 의미에 의해 표준어 ‘겹다’와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영랑의 시로 돌아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운 밤’과 ‘제운 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시 ‘除夜’의 내용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문학』 2호에서 2연의 ‘제운밤’을 ‘제운맘’으로 정정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영랑시집』(1935)의 표기를 인용하기로 한다.

(11) 제운밤 촛불이 찌르르 녹어버린다  
 못견디게 묵어온 어느별이 떨어지는가  
 어둑한 골목골목에 수심은 떴다 가란것다  
제운밤 이 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  
 허부얀 조히등불 수집은 거름거리  
 샘물 정히 떠붓는 안쓰러운 마음결  
 한해라 기리운정을 묻고싸어 힌그룻에  
 그대는 이밤이라 맑으라 비사이다 (除夜)

위의 시를 보면 ‘제운 밤’에서 ‘제우다’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경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이 찌르르 녹고 무거운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제운 밤’이 ‘除夜’와 등가(等價)의 의미를 갖는지는 미지수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의 제목이 ‘除夜’인 점을 들어 ‘제운 밤’이 ‘除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시의 제목이 ‘除夜’라고 해서 반드시 시에서 ‘除夜’를 지칭하는 어휘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제운 밤’이 ‘除夜’를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제운 밤’이 ‘除夜’를 의미한다는 필연적인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제운 밤 = 除夜’라는 공식을 내세우기에는 오류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내린다면 ‘제운 밤’은 (7ㄷ, 8ㄷ) 및 (10ㄴ)의 의미를 적용하여 시간이 많이 흐른 ‘깊은 밤’ 또는 ‘늦은 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촛불이 찌르르 녹고 무거운 별이 떨어지는’ 시의 전체적인 문맥과도 맞아떨어지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방언 ‘제우다’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운 밤’을 특정한 때인 ‘除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론을 내

려 보면 가장 무난한 해석은 ‘깊은 밤’ 또는 ‘늦은 밤’ 정도가 된다.

영랑이 ‘除夜’의 ‘제’와 ‘제운 밤’의 ‘제’가 같은 음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깊은’ 또는 ‘늦은’이라는 어휘 대신 ‘제운’이라는 방언형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운 밤’을 ‘除夜’를 의미하는 영랑의 신조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제운 밤’과 ‘除夜’가 등가의 의미를 가질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운 밤’이 반드시 ‘除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열어 놓을 수 있을 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운 밤’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2연의 ‘제운 밤’을 ‘제운 밤’이라 표현해도 시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제운밤 이 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라고 이해하여도 ‘이 한밤이’ ‘제운밤’을 다시 반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문학』 2호에서 정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연의 시어를 ‘제운밤’이 아니라 ‘제운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수정은 애초부터 오기(誤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시인이 시를 다듬는 과정에서 내용상 수정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제운 맘’이 가리키는 것은 아무래도 바로 앞 행에 나오는 ‘수심’(愁心)일 것이다. ‘수심’(愁心)은 고유어로 ‘시름’이라 할 수 있으며 ‘시름겹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제운 맘’이란 곧 ‘시름겨운 마음’일 것이다. ‘이 한밤이 모질다’고 한 것은 화자의 마음에 시름이 가득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시름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다시 말해 이 시름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시름겨운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시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름을 덜기 위해 샘물을 떠 놓고 비는 모습을 시에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제운 밤’의 ‘제우다’는 (7ㄴ), (8ㄴ) 및 (10ㄷ)에 해당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영랑의 시에 사용된 ‘제우다’라는 시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우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제운 밤’과 관련하여 ‘除夜’를 고유어로 표현한 신조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제우다’가 표준어 ‘겹다’나 방언의 ‘제우다’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해 세밀한 접근을 시도한 본격적인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단편적인 해석만 계속 이루어질 뿐 시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비단 이 시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어 해석이 심도 있는 고찰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적절하고 탁월한 해석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고하거나 수용하지 못하여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 시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시를 감상하고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어 해석에 대한 논의가 매우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에 시어 해석을 심도 있게 다룬 논의가 서서히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본고는 ‘제우다’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단편적인 해석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주장들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우다’가 표준어의 ‘겹다’나 방언의 ‘제우다’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우다’가 표준어의 ‘겹다’ 및 방언의 ‘제우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영랑의 시를 포함하여 문학 작품 속에서 사용된 ‘제우다’는 남부 방언의 ‘제우다’와 동일한 어휘이며 이 어휘는 어형만 다를 뿐 표준어의 ‘겹다’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랑의 시에 나타난 ‘제운밤’과 ‘제운맘’의 의미를 해석한 결과, ‘제운밤’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하여 ‘깊은 밤’, ‘늦은 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고 ‘제운맘’은 ‘시름겨운 마음’, 다시 말해 ‘시름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 < 참고문헌 >

- 김동근, 1996, “1930년대 시의 담론체계연구 -지용시와 영랑시에 대한 기호학적 담론 분석-”,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명인, 1985, “1930년대 시의 구조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선태, 1997, 『김현구 시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김재홍, 1997, 『한국 현대시 시어 사전』, 서울: 고려대 출판부.
- 김종도·김우태, 2005, 『남해사투리사전』, 경남: 남해신문사.
- 손광은, 1982, “영랑시에 나타난 향토성 연구”, 『호남문화연구』(전남대) 12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유연석, 1984, “金永郎詩의 特性에 關한 考察”, 『順天大學論文集』(순천대) 3
- 이기갑, 고광모, 기세관, 정제문, 송하진, 1997, 『전남방언사전』 전남: 전라남도.
- 이돈주, 1978, 『全南方言』, 서울: 螢雪出版社.
- 이동석, 2005, “중세국어 용언 ‘계오다/계우다’의 통시적 변화”, 『민족문화연구』(고려대) 42
- 이승원, 1986, “代表詩 <除夜> 구조분석 : 순결성에 바탕을 둔 시간인식”, 『文學思想』 10월호
- 정한모, 1964, “조밀한 抒情의 彈奏”, 『文學春秋』 1-9
- 조재훈, 1981, “金永郎의 「除夜」-情恨과 울림의 리리시즘”, 『한국현대시 작품론』, 서울: 도서출판 문장.
- 최형기, 1997, “永郎 詩語의 국어학적 고찰”, 『우리말글』 21
- 한새암·최병두·조희범·박원석·문틈, 2006, 『전라도 우리토타말』, 서울: 소금나무.
- 허윤희, 2007, 『원본 김영랑 시집』, 서울: 깊은샘.
- 허형만, 1996, 『永郎 金允植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 Youngnang's Poetic Word 'jeuda'

Lee, Dong-seok  
(Cheongju University)

## Abstract

The poetic words 'jeunbam', and 'jeunmam' occur in Youngnang's poem 'jeya'. In these words, we guess that 'jeun' is a pre-noun form of the declinable word 'jeuda'. However, the word 'jeuda' is not common, so its correct meaning is not well understood.

Although many people have rais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is word, they didn't refer to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from others. So these interpretations have remained very fragmentary.

To explain the meaning of a 'jeuda', I investigated the meaning of the Korean standard word 'kyeoda' and the dialect word 'jeuda'.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jeuda' as used in literary works is the same as the dialect word 'jeuda' and is related with the Korean standard word 'kyeoda'.

To summarize, 'jeunbam' means 'a deep or late night' and 'jeunmam' means 'an uneasy or troubled mind'.

**Key words:** Kim youngnang, poetic word, dialect, jeuda, kyeopta, jeya, jeunbam, jeunmam